

광주자원봉사센터, 불린투어 운영... '오월 가치' 시민과 공유

전일빌딩245·기록관 등 돌며 역사교육과 자원봉사 병행 역사 해설 청취·현장 탐방...당시 시민 연대 의미 되새겨

광주자원봉사센터는 5·18민주화 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시민 정신을 되새기기 위한 '오월 안병 불린투어'를 운영하며 시민들과 함께 오월의 가치를 공유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참가자들이 광주의 대표적인 5·18 역사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체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민주·인권·평화의 정신을 자연스럽게 배우고 공감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참가자들은 오월 역사 공간 해설을 듣고 현장을 탐방하며 당시 시민들의 용기와 연대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전일빌딩245와 5·18기록관 투어일정과 상무지구 5·18자유공원 일대에서 진행된 활동은 역사교육과 자원봉사를 결합한 불린투어 형태로 운영돼 참가자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프로그램에서는 역사 현장 탐방뿐 아니라 환경정화 활

동, 시민참여 미션, 설치미술 연계 체험 등을 함께 진행하며 의미를 더했다.
광주자원봉사센터 류미수센터장은 "오월 안병 불린투어는 단순한 역사 탐방을 넘어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며 민주 시민성을 체감하는 프로그램"이라며 "앞으로도 세대와 국적을 넘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광주의 오월 정신을 다양한 방식으로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자원봉사센터는 앞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역사·환경·나눔 중심의 불린투어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지역사회 참여 문화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임영민 기자 looks@gwangnam.co.kr



광주자원봉사센터는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시민 정신을 되새기기 위한 '오월 안병 불린투어'를 운영하며 시민들과 함께 오월의 가치를 공유했다.



광주환경공단은 지난 13일 광주 관산구자원봉사센터, 동곡동 행정복지센터 등과 함께 마을 아산과 하천 일대에 무단 투기된 쓰레기를 수거했다.

광주환경공단, 민·관·공 협업 환경정화 활동

동곡동 일원 쓰레기 청소

광주환경공단은 지난 13일 관산구 동곡동 일원에서 도심 환경 개선을 위한 '쓰레기 없는 마을 만들기'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활동은 동곡동 마을 아산과 하천 주변에 무단 투기된 생활쓰레기와 각종 폐기물을 수거해 깨끗하고 쾌적한 마을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광주환경공단 송

대운영팀과 송대자원화팀을 비롯해 관산구자원봉사센터, 동곡동 행정복지센터, 동곡동 마을 주민 등 총 10명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마을 아산과 하천 일대를 돌며 방치된 쓰레기를 집중 수거하고,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정화 활동에 힘을 보탰다.
이번 활동은 지역 주민과 공공기관,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한 민·관·공 협업 활동으로, 지역사회가 함께 환경보호를 실천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양수기 가동훈련. 여름철 집중호우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14일 광주 관산구 흥룡강 송산근린공원에서 열린 양수기 가동 훈련에서 지역 자율방재단 단원들이 양수기를 활용한 배수 실습을 하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조선간호대, 5·18 정신 잇는 단체헌혈 동참

올해만 네 번째...50여명 참여 오월 헌혈정신 홍보 캠페인도

조선간호대학교가 제46주년 5·18민주화운동을 맞아 오월 헌혈정신 계승을 위한 단체헌혈에 나섰다.
조선간호대학교는 지난 13일 교내 본관 앞 헌혈버스에서 재학생과 교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단체헌혈을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1학기 네 번째로 진행된 이날 헌혈에는 50여명의 학생과 교직원이 생생하게

실천에 동참했다. 특히 박명희 총장과 조선간호대 RCY 단원, 장미희 광주남양혈액원 헌혈지원팀장 등 20여명이 참여한 5·18민주화운동 기념 홍보 캠페인도 함께 펼쳤다.
박명희 총장은 "5·18 당시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시민들에게 헌혈을 요청하고 환자 치료에 헌신한 고 안성태 오월어머니 집 초대관장과 같은 훌륭한 간호사 선배들이 있었다"며 "재학생들이 정기적인 헌혈을 통해 나눔을 실천하고 인도주의 정신을 갖춘 의료인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조선간호대학교가 지난 13일 제46주년 5·18민주화운동을 맞아 오월 헌혈정신 계승을 위해 본관 앞 헌혈버스에서 단체헌혈을 실시했다.

'민·군 스포츠과학 협력' 광주시체육회, 육군보병학교 표창

전투 체력 과학화 지원 전갑수 회장, 공로 인정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이 17개 시·도 체육회 가운데 처음으로 국군 전투 체력 과학화 지원에 기여한 공로로 인정받아 육군보병학교로부터 표창장을 수여받았다.
이번 수여식은 14일 광주체육회관 2층 중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서일권 육군보병학교장 직무대리는 민·군 체육 교류 활성화와 군 전투체력 향상에 기여한 공로로 전갑수 회장에게 표창장을 전달했다.
광주시체육회는 국가 안보 확립과 정예장병 양성에 헌신하며 민·군 합동 교류와 군 체육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서일권 직무대리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시체육회는 지난 2023년 육군보병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스포츠과학 기반 체력 증진 프로그램과 군 체육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올해는 제11공수특전여단과도 협약을 맺으며 스포츠과학이 국방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다.
특히 육군보병학교 소속 소위·대위 등



14일 광주시체육회관에서 열린 감사패 및 수여식에서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과 서일권 육군보병학교장 직무대리 등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장교 1200여명을 대상으로 부상 예방과 회복 전략에 대한 과학적 이론 교육과 실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해당 프로그램은 일선 부대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내용으로 구성돼 장교들의 현장 지휘 역량과 병력 관리 능력 향상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사업을 총괄하는 광주시체육회 연구원은 앞으로 육군보병학교를 비롯한 군 관련 기관과 협력을 확대하고 스포츠과학

기반 전투 체력 지원 모델을 더욱 고도화할 계획이다.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은 "광주시체육회와 육군보병학교가 체육과 스포츠과학을 매개로 협력하며 지역사회와 군 발전에 함께 기여하게 돼 뜻깊다"며 "앞으로도 스포츠과학 기반 체력 증진 프로그램을 확대해 민·군 교류 협력과 건강증진 지역공동체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김철민 동신대 태권도학과 교수 체육 발전 공로 도지사 표창 수상

동신대학교 태권도학과 김철민 교수(사진)가 태권도 인재 양성고 지역 체육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전남도지사 표창을 수상했다.
김 교수는 오랜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실기·이론 교육을 실시하며 우수 태권도 인재 양성에 힘써왔으며, 학생 중심의 교육과 성실한 지도 활동으로 높은 평가를 받아왔다.
특히 지역사회의 연계한 다양한 체육·봉사 활동을 통해 태권도의 가치와 문화를 확산하고, 도민 건강 증진과 건전한 체육문화 조성에 기여한 점이 이번 수상의 배경이 됐다.
김철민 교수는 "뜻깊은 상을 받게 돼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태권도 인재 양성고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며 건강한 지역사회 체육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나주·조항진 기자 pose007@gwangnam.co.kr

게시판

결론 △김중원·정연옥씨 장남 영진군, 채화석(광주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박순복씨 장녀 지우양=23일(토) 오후 1시 광주 서구 농성동 더 시그너스 웨딩.
일림 △일가정양립지원본부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 사용할 경우 062-1366.
△사랑마루협동조합 취약계층 복지장려서비스=기초생활수급자, 조손가정, 무의탁 독거노인, 저소득층, 장애인(3급 이상) 장의업관용품·장례지도사 무료지원 062-369-4009.
△이동일시보호 상담=미혼부모아동·결혼가정아동·경제적 사정·아동 학대 등 양육환경에 어려움 있는 3세 미만의 아동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입소 상담.

광주영아일시보호소, 문의 062-222-1095·1096.
모집 △구당침·뜸 수강생=가족건강관리, 노후 건강을 위해 '배워서 남주자'란 모토로 구당침·뜸 수강생 모집. 관심있으신 분 누구나 가능. 뜸사랑 광주·전남지부 문의 062-521-3999.
△시니어를래너지지도사(자격반)=시·군·구 지부모집, 한국치매예방교육원 광주전남지사, 문의 010-5522-9700.
△사회공헌활동 돌봄봉사자=어르신 돌봄봉사자 모집, 13세 이상 가능. 동구노인종합복지관 문의 062-232-4953.
부음 △서대옥씨 별세, 배현숙(광주시의회 의정담당관)씨 시모상 = 13일 오전, 전북 새 고장장례식장 3호실, 발인 15일 오전 7시, 장지 전북 고창군 아산면 선영, 063-563-1001

ონსე (음력 3월 29일)

- | | | |
|---------------------------|----------------------------|----------------------------|
| 48년생 부부 간에 있었던 갈등이 해소된다 | 49년생 지난 일에 짐차 말고 현재에 전념하라 | 50년생 간사한 사람의 꾀에 넘어가지 마라 |
| 60년생 급기야 처리되는 통쾌함이 있다 | 61년생 아래사람과 일을 시작하는 것이 좋다 | 62년생 사회활동은 혼자서만 할 수 없다 |
| 72년생 한 곳에 집중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 73년생 해지려는 사람이 있으니 주의하라 | 74년생 손조로워써 경사가 겹칠 수도 있다 |
| 84년생 가는 곳마다 기쁨이 있는 날 | 85년생 갑자기 중요한 약속이 취소 될 것이다 | 86년생 배우자는 귀하의 마음을 알지 못한다 |
| 96년생 무리한 것을 바라지 마라 | 97년생 활발히 움직일 때가 아니니 기다려라 | 98년생 활동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
| 51년생 헛소문으로 글치 아픈 일 생길수 있다 | 52년생 그 약속 절대 이행되지 않는다 | 53년생 부당한 거래는 이뤄지지 어렵겠다 |
| 63년생 항상 겸손하면 재앙을 피할 수 있다 | 64년생 길거리에서 차 조심하라 | 65년생 늦었다 생각하지 말고 지금 시작하라 |
| 75년생 생활 변경 안에서 있어야 길다 | 76년생 좋은 일로 집을 떠나 이동하게 된다 | 77년생 헛소문으로 송사까지 갈 가능성 있다 |
| 87년생 문제점 있지만 해결의 실마리도 있다 | 88년생 미리 준비해 두어야 차질이 없겠다 | 89년생 사소한 일로 중대한 일을 놓치게 된다 |
| 99년생 데이트 약속 있으니 아외로 나가자 | | |
| 54년생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된다 | 55년생 조심하지 않으면 곤욕스러워진다 | 56년생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기운들이 보인다 |
| 66년생 적용하지 못하면 혼란에 빠진다 | 67년생 운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라 | 68년생 쫓기고 배이는 것을 주의하라 |
| 78년생 자기 주관이 뚜렷해야 성공 | 79년생 절호의 기회가 다가온다 | 80년생 남자의 일은 될 수 있으면 나서지 마라 |
| 90년생 부모님의 병문안 후 상심하게 될 것 | 91년생 재앙은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 92년생 요행성 투기는 금물이다 |
| 57년생 변수가 생기지 않아서 우려된다 | 58년생 과음은 중병을 부르게 되니 주의하라 | 59년생 깜짝 놀랄 일이 생길 것이다. |
| 69년생 거래처 변동으로 아쉬운 날 | 67년생 점점 복잡한 관계로 접어들게 될 것이다 | 71년생 언행에 있어서 조심해야 한다 |
| 81년생 마음을 알아주는 이가 아무도 없다 | 82년생 취미 생활을 하는 것이 좋다 | 83년생 순간적인 오만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 |
| 93년생 앞장서 일하니 주변의 인정받는 날 | 94년생 동기가 뒷사람에게 도움을 받을 것이다 | 95년생 무리하게 시작하지 마라 |